

전쟁이 남긴 상흔을 마주하다…연극 ‘산불’ 빛고을 무대

광주연극협회 정기공연, 19-20일 광산문화예술회관

전쟁 이후 공동체에 남겨진 상처와 억눌린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작 ‘산불’이 광주 무대에 오른다. 광주 출신 극작가 고 차범석의 명작을 같은 지역의 배우들이 무대화하며, 호남 연극의 뿌리와 동시대적 의미를 함께 되짚는다.

광주 출신 극작가 차범석 명작
지역 연극인들의 무대로 재현



연극 ‘산불’ 연습 모습.

(사)한국연극배우협회 광주광역시지회(이하 광주연극협회)는 제20회 정기공연으로 차범석의 ‘산불’을 오는 19-20일 이틀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지역 연극인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순수제작 공연으로 마련됐다.

‘산불’은 전쟁 이후 남성들이 사라진 산골 마을에 외지 청년이 들어오면서, 억눌려 있던 욕망과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전쟁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남긴 균열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며, 인간 본성과 사회적 모순을 날카롭게 포착한 문제작으로 평가받는다. 국어 교과 과정과 수능, 연극영화과 입시 지정작품으로도 꾸준히 다뤄져온 만큼, 작품 자체가 지닌 교육적 의미도 크다.

이번 무대는 특히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세대를 아우르며 참여해 작품의 정서와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서와 시험지 속 텍스트로 접해온 작품을 실제 무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작을 현재의 시선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다.

작가 차범석(1924-2006)은 목포 출신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광주에서 보낸 지역 출신 연극인이다. 한

국 현대 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교육자로 활동하며 제7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했다. ‘산불’을 비롯해 ‘귀향’, ‘정기와 집’, ‘열대어’, ‘장미의 성’ 등은 전후 한국 사회의 현실과 인간의 본질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꽁꽁 논의되고 있다.

광주연극협회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연극 배우들을 중심으로 권익 보호와 교육, 창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작품 제작과 공연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한편,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배우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광주연극협회 회장은 “우리 지역이 넓은 위대한 극작가의 작품을 협회 이름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다. 전쟁 속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이들의 삶을 오늘의 무대 위에서 다시 비추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이 광주 연극의 정체성과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반도체 원리부터 미래 기술까지

국립광주과학관 올해 마지막 과학스쿨

반도체가 일상과 산업 전반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과학 강연이 마련된다.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7일 오후 7시 GIST 오룡관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과학스쿨을 개최한다.

이일민(사진)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기



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반도체로 만드는 세상’을 주제로 이날 강연에 나선다.

강연에서는 스마트폰과 가전, 자동차 등 일상생활 속 필수 기술로 자리 잡은 반도체의 기본 원리와 제작 과정, 미래 기술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어린이와 시민 눈높이에 맞춰

풀어낼 예정이다.

이일민 교수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학·硕·박사를 취득했으며, 일본 NTT와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 했다. 2023년부터는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반도체 회로 설계 분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과학스쿨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후 현장 입장이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ACC, 2026 청소년 진로체험 참가자 모집

‘우당탕탕 인턴십’ ‘평화이야기…’ 등

교육부 진로 체험 누리집 통해 신청



청소년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체험하고 미래를 설계해보는 교육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2026년 ACC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온보딩’과 ‘ACC 평화이야기보관소’ 두 가지다. ACC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예술의 최신 흐름을 경험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 진로 체험으로 미래 문화예술 인재를 기운다.

먼저 4·7월, 9·12월 매주 화요일 운영될 ‘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온보딩’은 청소년들이 ACC의 최연소 인턴이 되는 몰입형 디지털 애드테인먼트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사원증과 업무 파일을 받아 동료 인턴들과

함께 실제와 유사한 회사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공연 연출가, 아카이비스트, 홍보마케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직군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내년 5월에는 매주 목요일 ‘ACC 평화이야기 보관소’를 운영한다. ‘민주·인권·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게임 형식으로 풀어낸 디지털 스토리텔링 교육으로, 미션을 통해 아시아 역사 속 평화의 목소리를 찾아 나선다. 참가자들은 역사 속 비밀 이야기 보관소에 숨겨진 단서를 수집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프로그램은 100·150명内外로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는 교육부의 진로 체험 누리집 품질(www.ggoomgi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전남의 예술, 이어지고 더해지다

2025 전남 문예창작 성과 ‘한자리’

오는 21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지난해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전남문화재단이 한 해 동안 축적된 문예창작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ART is + 있다’를 주제로 한 2025 전남 문예창작 성과공유회가 오는 21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C·A동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재단 문예창작팀이 추진한 전 사업의 결과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자리다.

전남 문화예술 생태계의 흐름인 ‘창작기반 마련·창작활동 지원·홍보·유통·기지 확장·확산’의 구조 속 축적된 성과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주제인 ‘ART is + 있다’에는 예술이 사람과 사람을, 지역과 지역을 잇고, 창작의 순간들을 더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예술은 여기 있다(ART is)’는 선언을 통해 전남 곳곳에서 이어져 온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공유와 공감의 장으로 기획했다.

행사는 오프닝과 네트워킹 행사, 성과공유·평가 워크숍, 성과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오프닝 행사는 17일 오후 1시30분 여수세계박람회

장 예술제 연회장에서 열린다. 한 해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과 축하 공연, 문예창작 성과를 상징적으로 ‘잇는’ 참여형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전시는 국제관 갤러리 카렐리아와 동백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청년문화기획자 프로젝트·문예창작 사업 성과를 전시로 구현했다. 남도예술은행 20주년 기획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연장 운영해 전남 미술 유통과 아카이브 성과를 함께 조명한다.

17~18일에는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평가 워크숍과 청년문화기획자 프로젝트 라운드 테이블, 성과발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있는 계기도 제공한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남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진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신안지사 061)745-3797
- 해남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강릉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www.kjdaily.com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 062)650-2000

▶ 구독문의: 062)650-2022